



\* 지난주 강단제목 : 타락한 솔로몬과 솔로몬의 결론 (전 1:1-2, 딤후 4:1-2)

(1부) 오전 8:30 · 인도 : 심한결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2부) 오전 11:00 · 인도 : 박범서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 |              |   |
|--------------|---|
| ★ 임례송        | 오르간   |
| ★ 예배의 부름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
| ★ 응답송        | 찬양대   |
| ★ 예배선언       |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
| ★ 신안고백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 ★ 경배의 찬양     |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 다같이                           |
| ★ 고백과 용서의 말씀 | 설교자   |
| ★ 주기도        |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송) / 다같이                  |
| ★ 성서교독       | 94. 새해(2) / 인도자와 회중                           |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엡1:3-9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1:10-12)

- |        |  |
|--------|--|
| 찬송     |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다같이                             |
| 중보의 기도 | (1부) 여동훈 장로 (2부) 박동영 장로                                |
| 성경봉독   | 창세기 45:4-5(구약 71쪽), 요한이서 1:1-2(신약 395쪽) / 인도자          |
| 찬양     | (1부) 영원한 빛이 임하신 날 / 시온찬양대 (영상)<br>(2부) 오직 / 시온찬양대 (현장) |

**한 개인과 가문을 치유한 파수꾼 사도 요한**

-복음으로 여는 요한이서- / 설교자

- |          |                        |
|----------|------------------------|
| 봉헌       |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같이 |
| 교회소식     | 설교자                    |
| ★ 결단의 찬송 | 새 힘을 얻으리라 / 다같이        |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리  
 독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도다 땅 끝까지 끝 날까지 주의 백성 불드시니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 |             |        |
|-------------|--------|
| ★ 파송의 말씀    | 설교자    |
| ★ 봉헌기도 · 축도 | 정윤돈 목사 |

다음 주 기도 : (1부) 최명홍 장로 (2부) 정세완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부서예배

유치부	오전 11: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2랩넌트실
태영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1랩넌트실
어린이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1층 비전홀
중고등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대학청년부	오후 3:3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장소 : 5층 참사랑홀)

## 수요기도회

시간 : 오전 10:30 / 오후 7:30 · 장소 : 1층 비전홀

기도	(오전) 김갑례 집사 (오후) 고진순 권사
인도, 설교	(오전) 김양순 목사 (오후) 심한결 목사

다음 주 기도 : (오전) 김정연 집사 (오후) 김승훈 집사

## 금요심야기도회

시간 : 오후 8:00 · 장소 : 1층 비전홀

기관보고	어린이부
설교	박범서 목사

다음 주 기관보고 : 중고등부

##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월) 심한결 목사	(화) 이현규 목사	(수) 이현규 목사
(목) 박범서 목사	(금) 박범서 목사	(토) 심한결 목사

2026 참사랑교회의 응답

참사랑교회

오직성경 오직복음 오직예수

(이사야 34:16, 디모데후서 3:16-17)

## 교회소식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에서 새가족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 교회소식

1. 예·결산 심의를 위한 연말제직회가 오늘 주일2부예배 직후에 5층 참사랑홀에서 있습니다.
2. 예·결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 주일2부예배 직후에 5층 참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세례교인 이상의 모든 성도분들께서는 교회의 1년 흐름을 두고 기도하는 응답의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총회 신년하례회 예배가 1월 5일(월) 오전 11시부터 본교회 5층 참사랑홀에서 드려집니다.
4. 앞으로 진행될 본교회의 연말 일정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연말제직회, 1.11 공동의회)
5. 지난 송구영신예배 때 2026년 기도제목을 제출하지 못하신 성도분들은 5층 로비에 비치된 용지에 작성하셔서 헌금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는 교역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각 기공예시는 재경장사를 위해 제출하셨던 회계장부를 4층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7. 지난해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기존에 발급받으셨던 분들은 바로 수령해 가시면 되고, 신규 신청자는 미리 신청하시면 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81조에 의거하여 가족합산 및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여 발행은 안됩니다.)
8. 2026년도 교회 요람작업을 위해 예정입니다. 개인, 가정, 직장과 관련, 요람에 기재될 내용을 수정하실 분들은 교역자실로 알려주시거나, 5층 로비에 비치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026년도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방송실, 차량봉사, 기타 부서에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10. 연말에 참사랑 램프트 해외어학연수가 진행됩니다.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11. \* 본교회 장학헌금계좌(신한은행 100-033-576780)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명 : 000 어학)
11. 매일 구원의 길을 기록하실 분들에게는 봉당 앞에 준비된 용지를 가지고 가셔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예배시간과 헌금안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장소 : 5, 6층 참사랑홀
  - 2) 수요일예배, 수요일오전예배, 금요일아침기도회 / 1층 비전홀
  - 3) 매일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화하여 새벽 5시 30분에 전체 소통방에 올라갑니다.
  - 4) 주일 각 부서의 예배시간입니다.
    - (1) 오전 11:00~12:20 유치부 (2) 오후 2:00~3:20 태영아부
    - (3) 오후 2:00~3:20 어린이부, 중고등부 (4) 오후 3:30~4:50 대학청년부
    - (5) 매월 마지막 주일은 오후 2시부터 램프트부서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 5) 다락방 및 지교회 모임은 시간을 정하셔서 줄이나 전화통화,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녹화를 하여 양육과 교제와 말씀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6)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토요일에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입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참사랑교회)
    - (예 : 000주정 / 반드시 한글기준 7글자 이내)
    - 일반헌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 주정, 심일조, 감사, 절기, 차량, 기타헌금 등
    - 헌당헌금 : 신한은행 100-022-072886
    - 장학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780
    - 선교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822
    - RUTC헌금 : 신한은행 100-035-010731
    - \* 헌당, 장학, 선교헌금, RUTC헌금을 제외한 헌금은 일반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 기관 및 교우소식

1. 교역자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정운돈 담임목사 : 1.5 신년하례회, 1.6 유아유치사역자수련회, 1.7-8 목회사모원(겨울학기)
  - 2) 이현규 목사 : 1.6 유아유치사역자수련회
2. 대학입학시험 일정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 램프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원, 문정민, 송지수, 안나균, 양승우, 여명, 황세희)
3. 군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주보 14면에 있습니다.)
4.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이영경 집사, 이순덕 권사, 박숙자 집사)

### ■ 참사랑 RUTC소식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복지, 과학, 예술, 체육, 예능, 교육, 군경, 공무원)

1. 금토일시대를 준비하는 참사랑 RUTC 램프트의 활동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서예교실 : 한 달에 1번(토요일) 10시, 2층 식당. (모집 중)
  - 2) तरीकतचैजोशिल : 당분간 운영중지. (담당 : 정수환 집사 010-5527-6067)
  - 3) 스키&스노보드 : 동계. (담당 : 박찬열 집사 010-8760-0756)
  - 4) 탁구교실 : 매주 토요일 11:50분, 2층 로비. (담당 : 최혜숙 권사 010-9430-9862)
  - 5) 수묵캘리그래피 : 첫째, 셋째 토요일 19:00, 2층 식당. (담당 : 김순호 장도 010-8630-4414)

## 교회소식

- 6) 기타클래스 : 매주 토요일 14, 17, 19시, 4층 당회실. (담당 : 이명 장로 010-2222-7624)
- 7) 축구&풋살 : 한 달에 1번.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8) 트리니티찬양교실 : 첫째, 셋째 수요일 14:30분, 3층 제2랩넛트실. (담당 : 임예진 권사 010-6225-9661)
- 9) 취미그림교실 : 첫째, 셋째 토요일 17:30, 2층 식당. (담당 : 조수영 집사 010-3777-8315)
- 10) 복음영어클래스 : 주일(성인) 19시, 토(RT) 3:30분, 1층 초등부실. (담당 : 주은경 권사 010-9542-8212)
- 11) 드림클래스 : 매주 토요일 6, 7시, 5층 참사랑홀, 8시 1층 비전홀.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12) 피아노&기초음악이론 :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담당 : 이석 집사 010-5067-1426)
- 13) WIO스마트팝 :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2. 연가, 연극, 영화, 방송, 뮤지컬 탐을 모집합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010-6335-3719)
3. '서예교실'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 이현규 목사 010-9736-3556)
4. 피아노&기초음악이론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심한결 목사 010-8206-2024)
  - 1) 강사 : 이석 집사. 2) 레슨방법 : 주1회 1시간(개인레슨). 3) 레슨장소 및 시간 : 4층 찬양대실, 요일 협의.
  - 4) 레슨비(4주 기준, 1인당) : 피아노 10만원 / 기초이론 6만원. 5) 모집인원 마감 때까지.
5. 취미그림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성악 발성반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희권 장로 010-2334-6713)
  - 1) 강사 : 김희권 장로. 2) 레슨장소 : 4층 찬양대실.
  - 3) 레슨방법 : ①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회비는 참석할 때마다 1.5만원).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회비 : 월 6만원).

### ■ 훈련 및 집회소식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주 토요일 산업선교(오전 9시), 전도학(오전 9시 40분), 핵심예배(오전 10시 30분)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본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층 비전홀에서 핵심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2. 유아-유치사역자수련회가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출2:1-10)'을 주제로 1월 6일(화)에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3. 목회사모원(겨울학기)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만들 시간표(히13:8)'를 주제로 1월 7일(수)부터 8일(목)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4. 세계교사수련회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지속해야(행1:3)'를 주제로 1월 14일(수)부터 15일(목)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5. 세계청소년수련회가 '미래를 준비하라(행1:1, 3, 8)'를 주제로 1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본교회는 1차 일정(1월 19~21일)으로 인도받습니다.

## 1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0주차	송구영신예배(12.31) / 원단기도회(12.31~1.1)
1주차	신년주일, 연말제식회(4), 신년하례회(5) / 중,고등(청소년)합숙 1차(5~8), 유아유치사역자수련회(6, 덕평 RUTC), 목회사모원(겨울학기, 7~8)
2주차	공동의회(11) / 영어합숙(초등부, 12~15), 세계교사수련회(14~15)
3주차	세계청소년수련회(1차: 19~21, 2차: 21~23, 덕평 RUTC)
4주차	랩넛트연합예배(25) / 태영아부모합숙(26~29), 237화요제자훈련(27, 덕평 RUTC), 초등합숙 1차(29~31), 랩넛트데이(31)

## 1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헌금위원	(위원장) 정연규 (위원) 김금남 라중화 신승훈 박희영 양경아 이정미 임소순 임혜연 박주은 이영경
성찬위원	(5층)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6층) 정연규 여동훈
안내위원	(위원장) 여동훈 (1층) 양경심 김경희A (5층) 최신혜 이은숙 유경선 고진순 (6층) 이정미
주차안내	안수집사 전원

## 기도제목

### ■ 연간 기도제목

1. 참사랑교회를 통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도는 '오직성경' 안에서 '참진리'를 발견하고, '오직복음'으로 '참치유'를 누리며, '오직예수'로 '참구원'을 증거하는 참사랑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총회를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는 참사랑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성경적인 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총회와 협회와 노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3. 한국교회를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 2026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 기도문'

"2026년도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전도자, 제자, 증인의 응답을 앞당기게 하소서"

- (1) 주일강단메시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2) 복음요절을 암송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 (3) 성경 1독, 성경 쓰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 (4)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그리기를 통하여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5)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6) 5인 1조의 팀을 형성하여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7) 나의 237나라와 나의 선교사를 찾아 선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 (8)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현장에 참사랑RUTC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9) 유튜브 10분 복음소식을 통하여 비대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 (10) 복음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 (11) 300전도캠프 현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공원, 병원, 커피숍, 학교, 역, 직장, 쇼펍센터, 노인정 등)
- (12) 금토일시대에 사실적인 3가지 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 1) W.I.O 협동조합 (스마트팜, 인공지능, 로봇, 생명, 우주)
  - 2) 치유시스템 구축 (중독, 정신, 영, 건강)
  - 3) 예체능 협동조합 (스키, 체조, 탁구, 축구, 악기 등)
  - 4) 고령화시대준비 (100세 목상요가, 120세 모세건강법)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 5) 복음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이 모델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13) 70나라 여행캠프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 (14) 70나라에 병원, 약국, 목상 등 영혼, 정신, 육신 치유의 절대대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15) 참사랑전도학교,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 참사랑핵심(주일)을 통하여 부흥의 응답을 주옵소서.

## 현당을 위한 헌신

<b>70인 요원 (24명)</b>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김경수-강승자-김대식 최정웅-전정아 유경형-리종화 주재진-권혜경 김경환-최복순 전인숙-김원일 김창희 임근일(양은숙) 신승훈(박영인) 박점순 정연규(이은숙) 김중복(한명희) 박지영
<b>300인 용사 (131명)</b>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삿7:7)"
정운돈 최신영 양은숙 박영인 윤두영 강창숙 최봉식 최신주 박동영 최진희 오국환 이은희 조남은 이은옥 최영철 최후순 최명홍 이계옥 구지성 송영희 허경열 홍승희 박희순 이수용 이미자 유승범 주은경 이영순 박영재 양경심 강현자 김영길 박혜숙 김석재 손혜옥 여동훈 백소정 서정례 박철남 이상훈 서희석 나향남 이승재 심주환 김현숙 이홍근 김창희 송길호 최신혜 채용민 이효숙 오신자 정세완 박희영 정수환 최송화 박준민 황인선 주철우 정선희 권은희 민경환 이명재 구윤진 배형석 박인자 여상훈 노선희 김요셉 김해정 김남숙 정민호 이서은 최요호 오난희 장성순 박난순 김순자 김 현 임경미 박범서 김진아 김미선 최철규 현영희 장영호 여준석 김성열 김순호 배승찬 배명자 신옥희 김태운 이남현 오영숙 정향란 강요한 윤홍광 임혜연 박광현 박성혁 이신순 이희숙 왕진상 김선옥 김중남 김주영 김영진 변연숙 윤소현 김성순 김요한 백순덕 김금남 김복남 임영순 김옥천 김순이 서서원 박서진 이현주 김선희 강경현 장경희 유경선 장년영 양은옥 공영호 박봉기 박준석 이영희

##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정윤돈 최신영 최정웅 전정아 박범사 김진아 심한걸 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전인숙 김원일 김점영 유경형 라종화 주재진 권혜경 이수용 오국환 정영규 이은숙 여동훈 박동영 최진희 최명홍 이계옥 정세완 신승훈 박영인 김 현 김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최신혜 이마자 김금남 유승범 주은경 김순호 김경진 최혜숙 이 명 이명재 구윤진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계자 이정은 이은덕 박인자 김춘례 호민수 강공이 임경미 조성규-김갑례 이순근 이영순 임영순 김순자 최이영 박희영 최재경 이은희 김정순-김용관 김희권 장소녀 김경애 주예진 임소순 김나경 정향란 한영화 정민호-이서은 김정연 윤순옥 심성하 정은숙 박서이 여수아 잔은정 유제숙 정예승 박주은 오이라 임혜미 이기에 박찬열 이민형 이주형 황혜주 이아연 정수환 조현지 조재형 송길호 최일숙 임혜연 이연근 이상구 이정미 유승환 최이현 이현주 이효숙 채송아 이진우 장유선-이정수 여 명 김승훈 김혜인 이민수-김숙희 고진순 한경숙 유영석 김태은 전주율 조부영 김창균-임예진 김영희 여현지 안선희 방주은 장혁준 배준서 안예근 양경아 최송화 무명20		
십 일 조	정윤돈 최신영 정세완 박희영 유종현 강공이 정민호-이서은 이명재-구윤진 박서이 양경심 김계자 이영순 정향란 배준서 정예승 정수환 이상구-이정미 김춘례 김현성-이미화 김승훈 이민수-김숙희 김아리 이수용-이마자 조부영 임상식 조성규 임근일 양은숙 박동영 박지영 홍경아 주재진 이민형 여동훈 이효숙 최일숙 양경아 최보인 임혜연 최일숙 이효숙 신혜선 안선희		
감사헌금	정윤돈 최신영 양경심 이은희 정세완 박희영 박학규 김희권 박서이 정민호-이서은 정세완 박희영 전승우-김영미 박학규 이은희 김지영 양경심 홍경아 방주은 정수환 김현진 이상구-이정미 최신혜 김태을 조연희 조재형 박영인 이은숙 유경형 라종화 이계옥 박동영 최진희 나영수 최송화 무명2		
성탄감사	조성규 문길순 김현성-이미화 김민영-김근호 양경아		
신년감사	정윤돈 최신영 최정웅 전정아 이현규-김수진 권은희 이효숙 채송아 이수용 이마자 배형성-박인자 오국환-이은희 주재진 김태은 정영규-이은숙 조성규-김갑례 장소녀 여동훈 백소정 최송화 김경희 최명홍 이계옥 배승찬 이 명 장길순 김영희 박영재 양경심 김성재 윤태자 송영희 김창균-임예진-김하운-김재승 오신자 홍경아 조현지 이정미 김춘례 오유라 정세완-박희영 주예진 호민수 김현성-이미화 김민영-김근호 김지열 김금남 전승우 김영미 임혜미 최신혜 박주은 김순자 유제숙 이정윤 이은덕 김영진 최혜숙 최재경 정민호-이서은 김계자 김정연 최이영 이영경 여 명 진민식 구순자 이현주 조재형 김태을 유승범 김승훈 오이라 유승환 최이현 정문철-이선아 조연희 방주은 정수환 고경훈 이민형 최일숙 이아연 황혜주 손혜옥 안도근 유경형-라종화 김순호 조부영 고진순 박동영 최진희 정향란 임근일 양은숙 임혜연 노은현 박난순 김순희 무명8		
심방헌금	임상식-지복순		
차량헌금	박동영-최진희		
일천번제	최신영		
선교헌금	최신영 정민호-이서은 정세완-박희영 임영순 양경심 이영순 박서이 방주은 정수환 조현지 유승범-주은경 김순호 이상구-이정미 김승훈-김혜인 유영석 조성규-김갑례 임근일 양은숙 박동영 최진희 주재진 임혜연 최일숙		
스리랑카 차유센터	정민호-이서은 정수환 방주은	스리랑카 차유센터(2025년도 합계)	5,009,000원
현당헌금	정윤돈 최신영 전정아 이수용 박서이 정세완-박희영 정민호-이서은 임영순 양경심 방주은 정수환 조현지 김순호 유승범 주은경 이상구-이정미 김승훈-김혜인 이민수 김숙희 김아리 김창균-임예진 조성규-김갑례 임근일 양은숙 박동영 최진희 임혜연 최일숙 참가평의회 무명		
장학헌금	최신영 박범사-김진아 이영순 양경심 정세완-박희영 정민호-이서은 박서이 방주은 임혜미 정수환 유승범 주은경 김순호 이상구-이정미 김승훈-김혜인 임근일 양은숙 박동영 최진희 주재진		
어학연수	임근일 양은숙 정수환 김승훈-김혜인 양경아		
RUTC헌금	정윤돈 최신영 박범사-김진아 김원일-전인숙 방주은 정수환 이상구-이정미 김승훈-김혜인 조성규-김갑례 임근일 양은숙 박동영 최진희		

\*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5.12. 26. ~ 2025. 12. 31.)

현당헌금 (2025년도 합계)	118,499,095원	차량 구입헌금 (2025년도 합계)	1,270,000원
참사랑 RUTC헌금 (2025년도 합계)	24,456,476원	어학연수헌금 (2025년도 합계)	10,132,000원

현당대출잔액 : 일본법화 458,000,000엔 (한화 4,351,000,000원 / 100엔환율=950원기준)

일반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현당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참사랑교회  
 선교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822 참사랑교회 장학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780 참사랑교회  
 참사랑 RUTC : 신한 100-035-010731 참사랑RUTC

## 2026년 구역조직

- 교구장 : 정운돈 목사

- 1교구(1~3지역)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 총무 : 이미자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
1지역/ 최진희	①오금1 (오국환)	박인자	최진희	최정웅 전정아 <b>박동영 최진희</b> 박서운 박찬열 배형석 <b>박인자</b> 배영광 정우연 배고는 박점순 이신순 <b>최일숙</b> 조영희 장혁준 <b>최봉식</b> 최신주 최해나
	②오금2 (박동영)	김주영	주은경	정운돈 최신영 정예승 정예준 정예건 이재풍 김주영A 이승현 이지훈 <b>유승범</b> 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유민상 주종성 박학규
2지역/ 이미자	③방이1 (이수용)	양경아	유경선	<b>이수용 이미자</b> 이재은 <b>여준석</b> 양경아 여 명 여수아 정철호 유경선 정동훈 이은순A 김홍기 문길순 김갑래 임상석 박서이 <b>박필수</b> 박소현 박경구 박도경 박세연
	④방이2 (최철규)	홍미경	이미자	최재혁 홍미경 최옥현 최도연 <b>박은지B</b> 윤소현A 윤대현 윤차현 박현우 김장삼A 최종현 김명자 김성배 강길자 김운우
	⑤천호 (유경형)	리종화	홍경아	<b>유경형 리종화</b>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홍형표 유승환 최아현 유나림 유허림 이영숙 박철남
3지역/ 김금남	⑥잠실 (이은숙)	조부영	김소라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황규철 김소라 황다인 황세희 박광현 <b>조영주</b> 박근혜 박지혜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이효숙 채송아 채정우 <b>전민식</b> 구순자 정재홍 전해진 정리아 조현지 오은사 권구현
	⑦송파 (임근일)	양은숙	박승숙	<b>김금남</b> 김수형B 김수민 <b>임근일</b> 양은숙 임혜연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⑧하남 (김경희)	김영희	한영화	이현규 김수진 이시은 <b>김경희A</b> 현백규 김현아 김영희 황혜주 강정자 <b>최철규</b> <u>한영화</u> 최종인 손병순 김준식 윤수연 조수영 홍주원 최영국 김윤지 최리오 심성지 심성하 유지열 송수민
⑭서울 경기			장미선 김희서 김원준 권세미 윤지은 <b>최명자B</b> 고대중 박형진 류성미 박하늘 박하린 김유진 안진성 문경화 안서운 안채운 안신영 신한수 이은주B 신민승 신연서 한경숙 변지영 박형석 강들봉 박요셉 원철호 홍경아 강예은 강예림 김형준 <b>박현주</b> 김민규 최영희 김정남 김효경 문예은 최한나 최한별 권우현 정민진 김대욱 박유신 김혜원 김기채 고정호 고정협 스포모모 강지우 전영종 김유나 권영숙 구성하 김수정 김성애 이아름 에 코 박준영 박준은 박지유 구황경 이선미 구아라 구지후 이기덕 김복란 이광훈 김명화 최민지 최민기 천 용 이유럽 최지원 조현우 이채원 이재준 이시연 손완식 양은예 손보미 손재현 손보국 이정택 이은진B 김미선 이해순 이해준 이현우 이은옥 조유연 조유연 이재윤 민희선 김가원 김도연 <b>도상철</b> <u>채희은</u> 도성용 김경현 강소영 김유연B 김소는 <b>김석재</b> 김정길 박순연 <b>여상훈</b> 노선희 여준후 여선후 박은선 <b>김준일</b> 최숙영 김하은 김유은A 김은성 송형자 정화영 한주아 한태민 <b>최영철</b> <b>최후순</b> 최요한 최지은 최두영 오주희 최희랑 최하을 최하린 김해수 이가원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종관 서숙정 이주한 이지한	

\* 위 명단은 각 구역원과 기도대상자의 명단입니다.

## 2026년 구역조직

- 2교구(4~6지역) 담당교역자: 심한결 목사 | 총무: 양경심 장로 - 3교구(7~9지역) 담당교역자: 이현규 목사 | 총무: 최신혜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
4지역/ 김계자	⑨오금3 (정세완)	박희영	임경미	정세완 박희영 김 현 임경미 김 수 김혜린 정연규 이은숙 김춘례 임수미
	⑩오금4 (주재진)	신혜선	권혜경	김계자 주재진 권혜경 주예진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임경순 양순옥 임선규 김태운 김금녀 이종남 김영순
	⑪오금5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정수환 정재환 전성배 박은서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5지역/ 양경심	⑫올림픽1 (김현)	장길순	이영순	유은식 장길순 유효진 유은재 이영순 박준석 설정화 박수환
	⑬올림픽2 (여동훈)	정년영	김정연	정년영 김정연 한공순 허경열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⑭올림픽3 (양경심)	이현주	양경심	박염재 양경심 박주은 박주영 김수영A 이현주 김지후
6지역/ 김순호	⑮강남 (김순호)	손혜옥	임소순	김원일 전인숙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안경호 김순호 안도근 안나근 안예근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임소순 천혜숙 강현자 김나경 김희경 김경애 이정민 조연희 조재형 조현근 고경훈 김두원 김세희 안선희 안민희 안현희
	⑯구리 (유승범)	이정미	임영순	이상구 이정미 이진형 최가은 이민형 이주형 임영순 임동영 장유진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전은정
7지역/ 이명	⑰오금6 (배승찬)	이명	임예진	박범서 김진아 배승찬 이 명 배준서 배현서 김창균 임예진 김효은A 김재승 윤순옥 구자성 송영희 이명재 구운진 이미화 김자영C 김민영 김근호 백순범 윤혜영 백소을 백하을 박환희 오상수 원태연 원아연 김희권 김승훈 김혜인
	⑱오금7 (이명)	최혜숙	홍명숙	김영진 최혜숙 김시연 김시아 최아영 홍명숙 손가를 손하늘 오신자 니콜라 박경아 라 나 아멜리 김순자 이병부 김정열 김운태 박숙자 도정호 유경순 도규철 이연균 도지민 김선희 김순호 이 하 안지용 안수현
	⑲오금8 (여준석)	고진순	이선아	오국환 이은희 오유라 오이라 유계숙 고진순 방주은 정문철 이선아 정유희 정은유 김창대 이정임 김아리 김영A 위준승 문정민 김애경
8지역/ 최신혜	⑳문장 장지 (라중화)	최신혜	이가에	송길호 최신혜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신성원 이가에 신현옥 신지유 장영균 송미경 장현규 장현우 장이준 장이서 장성순 박난순 장하영 장하은 민경환 권은희 나경철 신현식 니주희 니중훈 박진순 박주봉 박주승 장소녀 김지용 김정중B 유정빈
	㉑가락 (정연규)	백소정	정선희	여동훈 백소정 여현지 여종원 여은성 주철우 정선희 주이서 주이준 주이연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정민호 이서은 노은현 손상현 이군재 이순근 이수산나 허기이 임혜미
9지역/ 박영인	㉒거여 마천 (최진희)	박영인	이순덕	신승훈 박영인 신동윤 이정윤 이순덕 이영경 호민수 정은숙 박지현 김옥순B 이 석 김재우 유충현 강공이 유승호 전주울
	㉓강동 (신승훈)	정향란	김숙희	심한결 정지혜 심주연 심지연 정향란 이민수 김숙희A 이하연 이하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장영호 소선미 함조식 소속현 함재이 오인태 김자영B 오히림 오후원 김선옥 김지수 김성재 윤태자 정창호 김미현 정승주 정동주

## 타락한 솔로몬과 솔로몬의 결론

### -복음으로 여는 전도서-

전도서 1:1-2, 디모데후서 4:1-2

이번 성탄음악회에 많은 분을 초청했다. 보통 15~20명 정도 오실 줄 알고 롤케이크 선물을 30개 준비하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저기 말을 많이 해서 60개나 주문이 되었다. 너무 많다 싶어 줄였는데, 당일 오신 분만 38명 정도 되고 봉사자들까지 합치니 성황을 이루었다. 팀들이 헌신해 준 덕분에 아주 수준 높은 은혜로운 음악회가 되었다. 어떤 성도님들은 매주 음악회를 다니시며 문화를 누리시던데, 하나님은 우리가 음악, 미술, 예술 등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을 초청하여 복음화하고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제가 운동하면서 만난 분의 가족을 이번 에 초대했다. 세 명이 와서 롤케이크를 하나씩 다 받아가서 배 터지게 먹었을 것 같다. 그 아버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1년 내내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라고 고백했다. 반면 부인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신다. 문제는 딸인데, 이 친구가 운동선수가 되어야 하는데 언약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이번에 그 딸을 예배에 참석시켰더니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다. 다음에는 우리 연합예배 때 딸을 데려와 스키를 타는 멋진 모습도 영상으로 보여주고 후원금도 전달하며 격려하자고 했다. 이런 한 분 만나는 서밋운동이지만 모든 분에게 서밋들을 초청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자. 이들의 목표는 금메달이다. 우리 교회에서 작게라도 후원했는데 금메달을 따면 복음을 전하자. 내가 부족하면 함께 모여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말씀처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한다. “나는 안 돼, 어려워, 힘들어”라고 생각하면 전도 시도조차 못하고 1년, 2년을 그냥 보내게 된다. 성공한 사람들,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을 보라.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할 시간이 없다. 자기가 가야 할 절대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불만하고 남의 일 간섭하는 것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다. 저도 운동을 해보니 하루가 짧아지고 인생이 길어진다 것을 느낀다. 시간이 나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단 10분이라도 하고 오자’는 마음으로 틈을 내어 운동하고, 서점에 가서 책을 보고,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 원장님과 대화하며 전도의 문을 연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한 성도님이 램프트 현금 500만 원, RUTC현금을 하였고, 또 다른 분은 어학연수 비용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1,000만 원을 채워주셨다. 덕분에 송구영신예배 때 선발하여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현장을 보니 어학연수와 영적 훈련을 같이 해야 한다.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이 계시고, 홍콩의 새생명교회 같은 곳은 인재와 금융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케냐의 김동길 선교사님은 학교, 대학시스템까지 다 구축해 놓으셨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한두 달 살면서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 단,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위험이 있어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부모님 동의 도장 받고 “순교자의 각오로 가겠습니다”라는 아이들이나 보내려 한다. 아프리카는 유럽과 연결되어 있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통로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세계복음화다. 이 마음을 품고 또 송구영신예배 때는 여러분이 올해 응답 받은 것, 응답을 안 받은 것 같지만 생각해 보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이 있다. 그리고 2026년도 또 평생 기도제목을 적어 보자.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기도제목 다 적었는데 하나님 이 다 이루어 주셨다. 지금은 거의 안 적는다. “그냥 뭐냐면 알아서 하십시오”고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응답이고, 모든 생각이 응답이고 그렇다. 여러분이 응답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보이고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최고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졸업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전도서 메시지를 주셨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공부도 헛되냐? 맞다. 복음 없이, 하나님 모르고 하는 공부는 헛되다. 역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피해를 준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를 잘한 엘리트들이었다. 복음 없는 성공은 안 하느니라 못하다. 그러나 그 잔존성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용하면 천만 배의 축복이 된다. 대학 4년이 인생 40년을 좌우한다. 친구를 만나고 연애하는 것도 좋지만, 남은 것은 딱 두 가지다. ‘공부’와 ‘신앙생활’이다. 20대의 1년은 40~50대의 10년과 맞먹는다. 이때 어학, 자격증, 미래준비를 해야 하고,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고, 교회 봉사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며 교회를 배워야 한다. 이때 헌신하지 않으면 나중에 장로가 되어도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 졸업생들은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후대들도 보면 대학교 다닐 때, 사소한 건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졸업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성도들은 다 잘되었다. 목사님은 많은 경험과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더 영적인 것과 미래나 전 세계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각각 주는 조언이 다르단 말이다. 그 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말씀따라 강단의 목사님의 조언과 강단메시지와 또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면 그런

사람 치고 절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응답을 안 받는 사람이 없다.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은 바람, 입김, 안개, 공허함을 의미한다. 무의미하다기보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덧없음을 뜻한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의미가 없어진다. 예전에 탄자니아 선교지에 갔을 때 초등학교 1~2학년쯤 되는 꼬마 여자아이를 만났다. 수백 명의 현지인 사이에서 하얀 피부의 한국 아이가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이씨는 알코올중독으로 엄마를 폭행했고, 엄마는 도망갔으며, 오갈 데 없는 아이를 선교사님이 맡아 키우고 있었다. 너무 불쌍한 상황이지만, 그 아이가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절 대적인 계획이 있어서 저런 어려움을 주셨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가’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것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유 없이 뭐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느냐’, ‘인생에 대한 절대적인 방향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모든 것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주 사소한 것들도 다 나에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사한 것이다. 도저히 어떤 돈 있고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축복과 가치와 행복과 미래를 지금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복이고 축복이고 세계복음화이중 믿으시기 바란다. 사는 이유가 그것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지식과 명예를 배설물로 여겼다. 버렸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나니 그 지식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성공 자체가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된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세계복음화, 로마까지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철학자는 “인생의 공허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출발점이다”라고 했다. 인생의 허무를 느꼈다면 최고의 축복의 문 앞에 선 것이다. 어떤 성도가 “좋은 남편, 자녀, 집 다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공허하다”고 하시더라. 제가 “배부른 소리 한다”고 했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의미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솔로몬처럼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 앞에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무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참된 답과 결론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교회를 살리겠다. ‘우리 교회’만 살리겠다’하는 것도 종교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우리 교단, 이게 애국인 아니라 잘못하면 국수주의에 빠진다. 이상하게 빠진다. 세계를 살리기 위한 우리나라, 민족, 이렇게 여러분이 쓰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후반기에 기록한 책이다. 솔로몬이 청년의 때에는 아가서를, 그리고 중년에 때는 잠언을 썼고, 그리고 타락 후, 말년에는 전도서를 기록하였다. 솔로몬이 아가서를 기록할 때 그의 영적 상태는 오직 예수만 사랑 하는 줄 알았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문제가 없을 때의 고백이었다. 우리도 평소엔 ‘오직 예수’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남 탓하지 않는가? 그건 진짜 ‘오직’이 아니다. 완전복음이 아니다. 잠언을 기록할 때 영적 상태는 어땠는가?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했다. 자신이 제일 똑똑하고 왕이니 교만으로 꽉 차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복음이 안 들어간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는 가난, 질병,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오하려 축복이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을 만들어야 한다. 전도서를 기록할 때는 자신은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산전수전 다 쥐고 타락도 해보고 고나니,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전도서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겸손함과 온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 것이다. 그게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인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길 때 흑암은 켜지고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여의도순복음교회 복지시절에 봉사하러 간 적이 있다. 차 10대와 엄청난 후원금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인도 하는데, 뒤에 앉은 권사님이 일사함을 보며 “저 시탄, 머귀 버리”하고 비난하더라. 봉사하러 와서 “시탄아, 물러가라”한다고 물러가는가? 아니다.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고, 감싸줄 때 흑암이 꺾이는 것이다. 가정, 직장에서라도 마찬가지다. 내가 회생하고 손해보고 죽어질 때 시탄의 머리가 박살난다. 전도서의 기록목적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누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란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된 행복자, 진정한 성공자이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될 수 있다.

1. 솔로몬 왕이 누렸던 모든 영화와 타락

(1) 전도서 2장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라고 했다. 요즘 TV를 보면 ‘개그콘서트’, ‘웃찾사’같은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다 없어졌다. 왜냐하면 남을 웃기기 위해 만드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불행하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 최고의 코미디언이었던 구부서 장로님은 집에서 자녀들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절대 못 보게 했다고 한다. “나는 먹고살기 위해, 남을 웃기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지 싫다”는 이유였다. 솔로몬은 왕

으로서 당대 최고의 광대들과 개그쇼를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미친 짓이고 소용없다”는 것이었다. 고려대를 나온 똑똑한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인터뷰엔 자살소식도 있었다. 남을 웃기는 화려한 직업 같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인 문제와 궁핍함이 있기에 복음 없이는 결국 우울증과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진짜 추리, 나의 잘못이다. 그때 복음을 전했어야 했는데...”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린다. 얼마든지 길이 있다. 길은 뉘냐? 길 되신 그리스도야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길이 막혔다고 한다.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란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다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란다. 길 되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란다. 이유가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 능력과 아무 관계없다. 명문대학, 뭐 좋은 것, 학벌 다 소용 없다. 내가 정말로 날마다 도전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내 안에 타오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잘못된 길을 가고 마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족하더라도 연합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참된 왕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요, 선지자요, 길을 열어 주시는 선지자이다.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문제없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사랑과 용서를 알게 하시는 참 제사장이 내 주인이다. 이 주인이 계시는데 누가 이기겠는가? 아무도 이길 수 없고 누가 막겠는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린다.

(2) 전도서 2장 3절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라고 했다. 프랑스 부르그뉴의 어떤 외인은 한 병에 7억 원이나 한다고 한다. 당대 최고 부자였던 솔로몬은 전 세계의 술다는 술은 다 마셔보며 육신의 즐거움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 끝도 헛된 것이었다. 세상 것보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다는 고백이 복음과 진도와 양육과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가 아니면 전도하고 제자를 양육할 수가 없다. 내가 못 하더라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3) 솔로몬은 인생의 지혜와 정의를 찾으려 노력했다.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한국 사람들은 별로 정의롭지도 않으면서 정의를 엄청 좋아한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선으로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 선이 되기 쉽다.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의 정의와 선으로는 영적인 문제, 원죄, 사탄, 지옥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전도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사업을 크게 하고, 집을 짓고, 포도원과 여러 동산을 만들고 연못을 팠다고 했다. 일본에 갔을 때 정말 아름다운 정원과 연못을 본 적이 있다. 너무 예쁘지만 저걸 관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 나는 보는 것만 좋지 만드는 건 싫다. 성경유형검사를 해보면 ‘자연친화적 지수’가 높은 분들이 있다. 우리 사모님도 너무나 꽃을 보면 대화를 한다. 나무가 “목마르니까 물 줘”라고 말하는 게 느껴진다고 한다. 반면 나는 식물을 다 죽이는 스타일이라 예전도화에 다 방에는 절대 화분을 놓지 말라고 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좋아하지만 식물은 잘 안 맞는다. 어떤 분들은 수석이나 분재를 몇 억 원씩 들여 정성껏 키운다. 나뭇가지 하나만 부러져도 가치가 떨어지니 얼마나 애지중지하겠나. 솔로몬도 그런 정원과 연못을 꾸미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진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알게 된다. 천국에는 이 땅의 어떤 정원보다 천만 배 더 아름다운 정원이 예비되어 있다.

(5) 전도서 2장 7절에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낳기도 했다”고 나온다. 과거 미국역사에도 ‘노예 번식(Breeding)’이라는 끔찍한 일이 있었다. 건강한 노예를 강제로 교배시켜 노동력을 불리는 반인륜적인 행위였다. 당시에는 기계가 없으니 노예의 숫자가 곧 부(富)였기 때문이다. 솔로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지금 보면 얼마나 악하고 헛된 일인가.

(6) 전도서 2장 8절을 보면 은금과 보배를 쌓고, 노래하는 남녀와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이었다. 방패와 식기까지 다 금으로 만들 정도였고, 부인과 첩이 천 명이나 되었다.

(7) 전도서 2장 10절에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했다. 해볼 건 다 해봤다는 뜻이다. 그러나 2장 11절에 내린 결론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추구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였다. 그 후로 전도서를 쓰게 된 것이다.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보다가 결국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열왕기상 11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온다. 솔로몬은 애굽(이집트) 바로의 딸을 비롯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등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여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여인들이 결국 왕의 마음을 돌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 솔로몬은 시돈의 여신 ‘아스다랏’과 암몬의 기증한 신 ‘밀몰’을 따랐다. 밀몰(몰독) 숭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다. 생명을 사랑해야 할 왕이 자식을 불태우는 악한 종교를 허용한 것이다. 모압의 신 ‘그모스’를 위해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다. 그모스는 전쟁과 살육, 폭력을 정당화하는 신이다. 이기기만 하면 선(善)이고, 복수와 승리가 목적인 잔인한 신이다. 솔로몬이 이런 악한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나타나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에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순종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은 11절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신하에게 주리라”고 징계하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비극을 맞게 된다.

2. 솔로몬의 결론

솔로몬은 말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였다. 비록 그의 잘못으로 인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참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리고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

(1)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무려 37번이나 “헛되다”는 단어를 사용하여 인생의 결론을 말하였다. 대표적인 구절인 1장 2절에서는 한 절에만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한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한다. “솔로몬도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보고 즐기다가 늙어서 전도서 썼으니, 나도 젊을 땐 세상 실컷 즐기고 늙어서 하나님 잘 믿겠다” 참 훌륭한 배짱이다. 하지만 그것은 솔로몬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천국에는 상급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다. 솔로몬이 천국에 간다면, 어쩌면 우리보다 낮은 자리에서 부끄러워할지도 모른다. “나처럼 살지 마라, 그 모든 부귀영화가 헛된 것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의 타락한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 천만 배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2) 둘째, ‘전도자’로 사는 것이 인생 성공의 답이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신을 ‘전도자(The Preacher)’라고 6번이나 칭하였다. 그는 단순히 성공한 ‘왕(King)’으로 기억되기보다, 영적 서민인 ‘전도자’로 남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것이 참된 성공이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나는 세계복음화 하겠다”, “237개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을 품고 기도 하는 사람이 성공자다.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지구본을 돌려가며 237개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직접 다 못 가더라도 기도를 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길을 여신다.

(3) 셋째,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다. 어제 세례문답을 하신 장로님께서 “내가 좀 더 빨리 예수를 믿을 걸 그랬습니다”라고 아쉬워하셨다. 늦게 믿어도 귀하지만, 청년의 때에 복음을 깨닫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

(4) 넷째, 심판이 있음을 알고 행동하라.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겨워하며...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경고한다. 이는 반어적인 표현이다. “네 마음대로 다 해봐라.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책임이 따른다”는 엄중한 경고다. 그래서 여러분은 청년 때 영육 간에 랩넌트 시절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갈등하고 염려하고 남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 진짜 성공자는 그런 시간을 안 보낸다. 딱 목표를 가지고 나를 준비하길 바란다. 복음 안에서 영적인 철이 들어야 한다.

(5) 다섯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결국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최종 결론과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었다. 우리 다함께 전도서 12장 13절 읽어보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기를 바란다. 자신의 실수를 회개하고 다시 거듭난 솔로몬처럼, 정확한 인생의 결론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축원한다.

참사랑 RUTC현황 (예제능체임교실)

	시간 & 장소	담당자		시간 & 장소	담당자
여행캠프	모집 시	정창호 집사	서예교실	한달 토 10:00, 2층 식당	모집 중
트릭킹체조교실	당분간 운영중지	정수환 집사	스키&스노보드	동계	박찬열 집사
탁구교실	매주 토 11:50, 2층	최혜수 권사	수목캘리그래피	1, 3주 토 19:0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기타클래스	매주 토 14, 17, 19시 4층 당회실	이명 장로	축구&풋살	한달 토 오후	김승훈 집사
트리니티찬양교실	1, 3주 수 14:30 3층 제2랩넌트실	임예진 권사	취미그림교실	1, 3주 토 17:30 2층 식당	조수영 집사
복음영어클래스	매주 토 15:30, 주일 19시 1층 어린이부실	주은경 권사	드럼클래스	매주 토 18, 19, 20시 5층 분당, 1층 비전홀	김승훈 집사
피아노&기초음악이론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이석 집사	WIO스마트팜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정윤돈 010-8033-5678	부목사	심한결 010-8206-2024	목사(전도원)	김양순 010-8328-0132
원로목사	최정용 010-5260-5511		이현규 010-9736-3556	협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부목사	박범서 010-6335-3719	교육전도사	배고은 (네덜란드파송)	사무간사	박난순 010-9930-5558
전도인	최진희 이미지 김금남 김계자 양경심 김순호 이명 최신혜 박영인				
장로	(시무)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리종화 김현 여준석 김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지 김금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협동) 이군재 전민식 장공이 (해외) 최봉식 (은퇴) 이명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명예) 박철남 김계자 이정윤				
찬양대	(지휘) 고경훈 (오르간) 이서은 임예진 (피아노) 최신영 최송화 이석 (비올라) 채송아				

##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5층, 6층 참사랑홀	태영아부	주일 오후 2:00	3층 제1랩넛트실			
	2부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3층 제2랩넛트실			
	오후 2:00	1층, 3층, 5층 (부서별 예배)				어린이부	주일 오후 2:00	1층 비전홀
	오후 3: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2:00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수 오전 10:30	1층 비전홀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3:30	5층 참사랑홀			
금요심야기도회	수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영상			
자체훈련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새가족훈련	주일 오전 10:20	4층 당회실	산업선교	토 오전 9:00	1층 비전홀			
복음소식	주일 오후 12:30	3층 주간보호센터	전도학	토 오전 9:40				
태영아공동육아	수 오전 11:30	3층 제1랩넛트실	핵심요원훈련	토 오전 10:30				
어린이사명자	주일 오후 1:00	3층 제2랩넛트실	중직자대학원	주일 오후 5:00				
중고기도회	주일 오후 1:40	5층 참사랑홀	초등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집중전도신학원	수시	참사랑교회	청소년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참사랑교회		

## 국내외선교지

해외선교지	군파송자
[일본 히로시마참사랑교회] 심주환-김현숙(심성지 심성하 심성오 심성권)	[육군] 백승원 송영민
해외파송자 (27)	
[미국] 최형관-권순민(권유나 권유빈)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최혜나) 이슬 강지우 이진형-최가은 정예준 [호주] 박영준-김수미(박윤성 박민성) 박영환 [영국] 박경아-니콜라(라나 아멜리) [네덜란드] 배고은 [일본] 오유라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 교회 역사

###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복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 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회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윤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58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리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 교회 소개

###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 후대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 복지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셨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램넳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